

순천시 원도심 클러스터 21개 콘텐츠 기업 상생협약, 원도심이 달라진다!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 조성… 활력 찾을 원도심 기대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7일 남문터광장에서 '원도심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 입주기업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등 콘텐츠 기업의 이전은 시가 정원박람회 이후 문화콘텐츠 산업을 도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삼고, 콘텐츠 기업이 모여드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한 결과이다. 애니메이션, 웹툰 등 콘텐츠 기업과 작가들은 순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순천 이전을 결심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순천시와 건물 임대인 대표, 입주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3자 간 상호협력 체계 구축에 뜻을 함께했다.

협약에는 ▲입주기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적극 지원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의 적극 노력 ▲반값 임대료 등 입주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건물 임대인의 적극적인 협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원도심 클러스터 조성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이후 입주할 콘텐츠 기업들이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원도심이 새로운 활력을 찾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원도심은 순천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있는 중심지로, 이번 클러스터 입주는 쇠락하는 원도심을 도시 집속 전략으로 다시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전한 기업들은 지역에서 돈을 벌고 학생들은 일자리를 찾으며 원도심 상권은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건물 임대인 대표는 “기업들이 순천으



로 이전한다는 게 이제 실감 난다. 앞으로 본격적거릴 원도심이 기대된다”며 “입주기업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성공적인 클러스터 조성은 물론 지역 상권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입주기업 대표는 “동료 기업들과 함께 입주해 순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순천에 제대로 뿌리내려 순천을 글로벌 문화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나주시의회,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의원 및 의회사무국장 대상 반부패 청렴 의식 함양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청렴 의식 함양을 위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원 및 고위직 공무원이 갖춰야 할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청렴 문화 확산으로 투명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관계 법령에 대해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실질적인 법령 이해를 돕고 청렴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이재남 의장은 “이번 반부패 청렴교육이 공직 윤리를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공정한 자세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완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9년 연속 선정 80억 확보

보길 중리·여항리에 거점 공간 조성 및 시설 리모델링 등 추진

특화 발전 도모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군은 현장 답사와 주민 수요를 거쳐 생활 기반 시설 확충·정비,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정주 여건 및 경관 개선 등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등 공모 사업 선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세부 사업으로는 권역 거점 공간 조성, 공동 시설 리모델링,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인구 유입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봉 보길동권역추진위원회 위원장

은 “주민들과 지혜를 모으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얻은 뜻깊은 성과라 뜻깊다”라고 전했다.

신우철 군수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민의 열정적인 사업 추진 의지와 박지원 국회의원의 해수부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 적극적인 건의 등 덕분이었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활력 넘치는 보길동 권역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해양수산부 주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9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군은 5일 해양수산부 ‘2026년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사업 선정 결과 ‘어울림 보길동 권역(보길면 중리·여항리)’이 ‘행복한 삶터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은 주민 소득과 기초 생활 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여름 집중호우 피해 막는 배수로 지킴이가 영암을 지킨다.

영암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하혜성)가 9월 말까지 ‘우리 동네 배수로 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우리 동네 배수로 지킴이는 상습 침수 지역 배수로·빗물받이 등에 쌓인 낙엽 등 퇴적물과 쓰레기를 수시로 치워 집중호

집중호우 피해 막는 영암 배수로 지킴이가 뜬다

영암군자원봉사센터, 9월까지 ‘우리 동네 배수로 지킴이 캠페인’

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막는 자원봉사활동.

영암군 배수로 지킴이에는 영암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마을의 배

수로·빗물받이 등을 치우는 활동을 하고, 사진과 결과를 온라인(<https://naver.me/546ahj8z>)에 올리면 된다.

영암군자원봉사센터는 1회 참여하면

‘1365 자원봉사시간’ 1시간을 인정해 준다.

하혜성 영암군자원봉사센터장은 “집 앞, 동네 주변의 배수구를 정비하는 작은 실천이 곧 마을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다. 마을주민이 스스로 자기 마을을 지키는 자원봉사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장성군, 순국선열·호국영령 희생 가슴에 새겼다

6일 장성공원 충훈탑 광장… 보훈가족 등 300여 명 참석

장성군이 6일 장성공원 충훈탑 광장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가졌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장 등 보훈가족을 비롯해 김한중 장성군수, 심민섭 장성군의회 의장, 기관·사회단체장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오전 10시 정각,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사이렌으로 시작해 묵념,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조종발사, 헌화,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장성하이텍고등학교 임지수·박수연 학생의 헌

시 낭독과 참석자 전원 현충일 노래 합창을 끝으로 모든 식순이 마무리됐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추념사에서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가슴에 새기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념식을 마친 참석자들은 ‘3·1 운동열사장성의적비’와 ‘호남창의영수기 삼연선생순국비’에서 참배를 이어갔다.

장성/황해연 기자

구례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사·단속 실시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이를 위해 6~8월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및 감시활동을 추진하며,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

설의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집중호우 등 취약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환경오염을 예방해야 한다”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행정력만으로는 완벽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사업주의 책임 있는 환경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